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매시장 농산물 '중량 미달' 합동 점검



각화·서부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양파 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각화·서부 농산물도매시장 24일까지 특별점검 실시

양파·대파·무 등 3개 품목 대상...공정거래 질서 확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출하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8일부터 24일까지 각화·서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되는 농산물의 중량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의 표시중량과 실제중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출하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비롯해 도매시장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경매장, 하역장, 잔품처리장 등을 전방위로 돌며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그

동안 중량 미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양파, 대파, 무 등 3개 품목이다. 점검반은 무작위로 출하자를 선정해 표시중량과 실제중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표준규격품의 경우 포장 단위와 표시사항 등 관련 기준을 올바르게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표준규격품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중량 미달이 확인될 경우 경매 전에는 실중량을 반영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하고, 경매 후에는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 협의를 통해 가격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출하자 계도 및 시정조치한다.

하지만 반복 또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출하자를 별도 관리하고, 도매시장법인에 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표준

규격품 표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관련 법령에 따라 1~6개월 표시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중량은 출하자와 중도매인, 소비자 모두의 신뢰와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래 기준"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공정 거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매시장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중량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출하자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한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기아 오토랜드 광주, AI·스마트 산업 안전기술 우수사례 대상

기아는 오토랜드 광주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6 AI·스마트 산업안전기술 우수사례 챌린지'에서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목) 밝혔다.

이번 수상은 자동화 공정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기아는 기존 LOTO(Lock-Out,

Tag-Out)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주목했다.

LOTO는 설비 점검·수리 시 작업자가 직접 자물쇠를 설치해 설비 가동을 차단하고, 작업 종료 후 잠금을 해제하는 산업안전 절차를 뜻한다.

그러나 기존 LOTO 방식은 작업자가 자물쇠와 열쇠를 직접 휴대해야 하고, 반복 출입 시마다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다수 작업자가 동시에 진입하는 경

우 관리가 복잡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 진입 전 LOTO 활용률이 목표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는 등, 작업자 개인의 안전의식과 자발적 준수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AI LOTO 시스템'을 개발·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은 지문·NFC 기반

자동 인증, 안전문 손잡이 잠금 구조, AI 비전(Vision) 기반 재실 인원 자동 감지 기능으로 구성된다.

작업자가 공정 내부에 있을 경우 외부에서 임의로 설비를 가동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고, 출입 인원과 재실 인원을 실시간으로 비교해 불일치가 감지되면 즉시 알람을 발생시키는 구조다.

이를 통해 기존에 작업자의 주의와 판단에 맡겨졌던 안전관리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하고 통제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AI LOTO 시스템은 단순한 설비 보완을 넘어 '사람이 주의해야 하는 안전'에서 '위험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운 안전'으로의 전환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아는 오토랜드 광주 현장 적용을 통해 핵심 기능을 검증했으며, 표준 모듈화와 복수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 향후 타 공장 및 타 사업장으로의 수평 전개 가능성도 확보했다. /이가영 기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반도체 800조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전국기자 협회장**

김 경

전남·광주
미래 100년
첨단산업의 중심!